

# 특검 꺼내든 민주, 장외투쟁 만지작

# 與 '당정청 쇄신론' 금주 분수령

##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에 "더이상 검찰 못믿어" 촛불들고 10·15일 대규모 집회 ... '反MB' 결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에 대한 과장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함께 당내에서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종노모여행 회장에 대한 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은 검찰의 편파성을 방증하는만큼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카드를 선택했다.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해선 저인망식 수사 행태를 보였으면서도 현 정권에 대해선 바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강태 원내대표는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완전히 신뢰성을 잃어 특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당위성을 말하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만큼, 이제는 깨끗이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천 회장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정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전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조정성 의원 등 초·재선 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사과, 내각 개편 등과 함께 천 회장과 한상철 전 국제청장 등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당내에선 임시국회 개최조건으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법안 처리를 한 나라당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검찰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검추진 압박과 함께 장외투쟁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주목된다.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으나 여권이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경우 그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시 촛불을 들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정부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6·10 민주화운동,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등을 계기로 '반(反)MB' 진영 세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오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

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으로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와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역시 야 4당과 민주회합 등 통일운동단체 공동 주최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당내 비주류연립체인 민주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개혁세력이 총집결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및 대통령사과,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면적 장외투쟁에 들어가기보다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쪽으로 신중한 자세다. 제1야당이 국회와 버리고 장외로 뛰쳐나간다는 여론의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오늘 의원 연찬회 여론 가능 계기될 듯 조기전대 개최 싸고 계파간 균열 조짐

당정청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서 비등해지고 있으나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부정적 반응이어서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이에 따라 4일 열리는 의원연찬회가 이번 사태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와 '천이'(천이명박) 직계 의원들은 3일에도 지도부 사퇴와 조각수준의 전면개각을 요구했다.

김선동 쇄신특위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쇄신은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고, 쇄신 없이는 국정운영의 동력확보가 불가능하다"면서 "청와대가 민의를 반영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파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금의 사태를 보면 단순히 당 쇄신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박희태) 대표가 용단을 내려주는 게 불요를 트는 것이라고 생각해 지도부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천이계 한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다른 의원은 "우리 모두 사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넘어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조기전대 개최 문제를 둘러싼 천

이, 천박(천박근혜) 간 갈등은 물론 천이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천이 직계인 김영우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쇄신 이전에 정상국가를 바란다'는 글을 올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고 중도 실용주의 국정 기조를 함께 주창했던 분들이 당 지지율 하락에 사람도 기조도 모두 바꾸자고 소리 높이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각에선 당정청 개편을 주장하는 천이계 의원들 가운데 이재오 전 의원의 가까운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우려를 들어 '혹시 조기전대를 통해 당에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여서 4일 열리는 의원연찬회는 당내 여론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치현안 떠나 경제·외교 전력" '상왕' 이상득 의원 '2선 후퇴' 선언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3일 항후에 정치현안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2선 후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정치 현안에서 멀어지게 되겠다"며 "당무, 정무,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근거 없는 얘기도 많다"며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어떤 경우든 대통령 친인척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며 "내가 유일하게 당무에 참여하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가하고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과 외교통상 통일위 위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서 경제와 자원외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과 상의 여부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대통령과 정치 문제를 놓고 상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만사형통'으로 통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의원이 이처럼 2선 후퇴를 선언함에 따라 여권의 권력지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권력의 속성상 또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이제 관심사는 그의 퇴진으로 생긴 힘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다. 현재로서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가장 유력하나 그가 전면에 나설 경우 친박계와의 갈등 재연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돼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회의도중 일어나 박희태 대표 등에 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 박희태 "물러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 쇄신특위 지도부 사퇴 요구에 고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쇄신특위가 전 날 '끝장토론'을 통해 당 쇄신을 위한 지도부 사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으나 당 쇄신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표는 평소와 다른 예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6월 국회 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평가만을 내렸다.

당 쇄신론을 놓고 참석자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질 때도 박 대표는 묵묵히 이를 듣기만 했다.

박 대표가 이 같은 태도는 여러 지도부 지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잘못이 없이 일방적인 여론에 밀려

그만두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또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당 쇄신론의 분수령이 될 4일 연찬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연찬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어떻게 쇄신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법원, '노무현 가짜 대통령' 광고 단체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

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 담당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단체는 선관위 직원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가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5차례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 목장용지급매

-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목장용지 : 6,390㎡(1,933평)
- 대 지 : 476㎡(144평)
- 총 계 : 3,734평
- 건 평 : 2,350㎡(약700평)건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이나 한곳에 붙어있음
- 매도가 :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010-3617-8810

###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6월 1일 (첫진도 시역반)

국비지원 선착순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경수 합격

6개월과정 1년과정

- 27월 원성 3회 반복학습
- 영어기초이론 수강생 한화
- 수강료 25%/D/C 교재 15%/D/C
- 27월 원성 6회 반복학습
- 영어기초이론 수강생 한화
- 수강료 50%/D/C 교재 15%/D/C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8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www.gmega.co.kr ☎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7.9급 공무원 소직렬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無等과 만나세요!!

3040 주부반모집합회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개강 6월 1일 (주야 합법 모의)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문, 행정법, 행정학, 교공학 제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양학, 복지학, 소방학, 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www.mdgosi.co.kr ☎ 222-4560